나주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확대

농가별 맞춤형 GAP 컨설팅 추진

비용 전액 지원…농산물 신뢰 제고

나주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면적의 확대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GAP 선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GAP 인증 컨설팅 체감행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복잡한 GAP 인증 신청 과정에 있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장별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과 인증신청 대행을 비롯해 현장지도 및 인증 후 신청수수료와 안전성 검사비 신청까지 일괄 처리해 주는 현장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GAP 인증을 원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소재 읍·면·동과 컨설팅 업체(☎070-4911-1241)에 오는 12월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컨설팅 비용은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GAP 인증의 농가별 접근성을 높이고, GAP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더불어 인증면적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나주시는 배, 미나리, 참외, 플럼코트 등 1,228농가 1,422ha를 대상으로 GAP 인증을 받아 GAP 선도 지자체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인증면적을 1,700ha로 확대할 목표로 여름철 이·통장 교육과 우산각 간담회,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인규 시장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하는 농업의 첫 걸음"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GAP 인증 확대에 주력해, 지역 농산물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으로 기업 유치 여건 조성

광양경제청 양광식 중국팀장, 규제개혁 도지사 표창 수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 청장 권오봉)은 양광식 중국팀장이 금년 상반기 규제개혁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양팀장은 중국 투자기업 에이치에이엠(HAM)의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유치와 규제개선 지원으로 해외 투자기업이 광양만권에 조기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에이치에이엠은 한·중 FTA체결 이후 광양만권 투자를 결정한 1호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1천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5,000톤의 분유 생산 능력을 갖춘 외투기업이다.

하지만 유아용 조제분유의 중국 판매를 위해서는 광양공장의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등록·허가가 필요하나, 허가절차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양 팀장은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건의와 전국 경자청장협의회 규제개혁 안건 상정후 관세청, 산업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저율관세할당(TRQ) 품목인 분유원료에 대해 관세 선납부 방식으로 한시적·조건부 가공 허가를 이끌어 내었다.

이로써 에이치에이엠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시 허가받은 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개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성인분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농식품 분야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투자유치에 탄력을 더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중·일 콜드체인 구축과 고용효과가 높은 식품가공 기업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동부취재본부장=김승호 기자

화순군, 벼 직파 재배사업 지원

능주농협 주관 현장 견학

화순군이 벼 직파재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화순 농업인들이 나주 동강 복룡단지 직파재배 현장을 견학 했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7일 능주농협 주관으로 능주·춘양·한천면 등 3개 읍면 농업인 40여명이 나주 동강 복룡단지 직파재배 시범단지를 견학했다.

복룡단지는 10ha의 직파재배 사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다.

능주농협은 농가의 소득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목표로 올해 직파 시범단지 2ha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참여를 확대 하고 지속적으으로 홍보 하기 위해 이번 현장 견학을 추진했다.

능주농협 관계자는 "이번 현장견학을 계기로 직파농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직파농업이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는 우리 농촌에 노동력 절감과 농가경영안정화에 새로운 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벼 직파단지 농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동력파종기 및 개량물꼬 구입에 대한 5천만 원을 보조하는 등 직파재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충곤 군수는 지난 5월 춘양면 부곡리 단지에서 벼 직파재배 파종을 시연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시민행복플러스 합창제' 개최

10월 14일, 순수아마추어 합창단 21개팀 700여 명 참가

순천시는 오는 10월 1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소리로 나누는 행복, 하모니로 전해지는 감동'이라는 주제로 '시민행복플러스 합창제'를 개최한다.

시민행복플러스 합창제는 다양한 아마추어 합창단의 참여를 유도해 합창으로 행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합창축제이다.

사전신청으로 모집된 순천시 아마추어 합창단 21개팀 7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합창제에서는 초등학교 합창단부터 실버 합창단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기는 무대를 통해 참된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합창제에서는 경연의 의미에서 벗어나 페스티벌에 중점을 둔 형식으로 순천과 관련된 지정곡과 각 팀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자유곡 등 2곡을 선보인다.

시상 또한 등수를 매기지 않고 하모니상, 나눔상, 배려상, 행복상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할 예정이다.

시민행복플러스 합창제는 입장료는 무료며,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합창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합으로, 시민행복플러스 합창제를 통해 전 시민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新 관광명소 '광양 와인동굴' 정식 개장

지난 주말 3,000여 명 방문

광양시는 '광양 와인동굴'이 지난 7일 오후 7시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의 와인을 맛보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광양 와인동굴에 지난 주말 3,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광양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광양 와인동굴은 민간사업자인 ㈜나르샤관광개발(대표 최무경)이 지난해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 석정 1터널과 2터널, 폐철로를 개발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색다른 관광시설이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신현숙 광양부시장과 시의원, 와인동굴 관계자,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에 이어 축사와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번에 개장하는 석정 1터널 와인동굴은 2011년 8월 광양제철선 개량사업으로 폐선된 이후 오랜 기간 방치된 광양읍 용강 정수장 아래를 통과하는 터널로 길이 301m, 폭 4.5m, 높이 6m이다.

총 10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와인동굴은 바닥 트릭아트 구간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와인을 체험하고 시음할 수 있는 전시장과 카페테리아, 터널 벽에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로 운영된다.

또 와인병 영상 조형물인 '오브젝트 맵핑'과 관람객의 동작에 반응하는 '미디어 인터랙티브존' 구간, 화려한 LED 불빛으로 꾸며진 '빛의 터널'과 '지역화가 갤러리', 가상현실을 활용한 VR체험관 등을 통해 관람객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요금은 개장 후 6개월 동안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이다. 이후에는 2,000원씩 각각 인상된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모기유충 방제 미꾸라지 방류

해룡천과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에 130kg 방류

순천시는 최근 해룡천과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에서 모기 천적인 미꾸라지 130kg(약 1만3천마리)을 방류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룡천 인근 연향3지구 상가 주민들과 덕연동 주민, 어린이 등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방류된 미꾸라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것으로 모기유충 포식에 적합한 10cm 미만의 중급 미꾸라지다.

여름철 해충인 모기유충과 깔따구를 잡아먹는 미꾸라지는 친환경적으로 해충 방제에 이용되고 있으며, 하천이나 호수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 수중 산소를 공급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루에 모기유충 1500마리 이상을 포식하며 가장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이기에 순천시보건소에서는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해룡천 주변 상가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으나, 미꾸라지 방류 후 위생해충이 급격하게 줄어든 바 있다.

보건위생과 김윤자 과장은 "앞으로도 순천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정원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등 친환경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